

# 글쓰기가 두려운 이공계를 위하여

김재영

(과학과 기술 글쓰기 전임대우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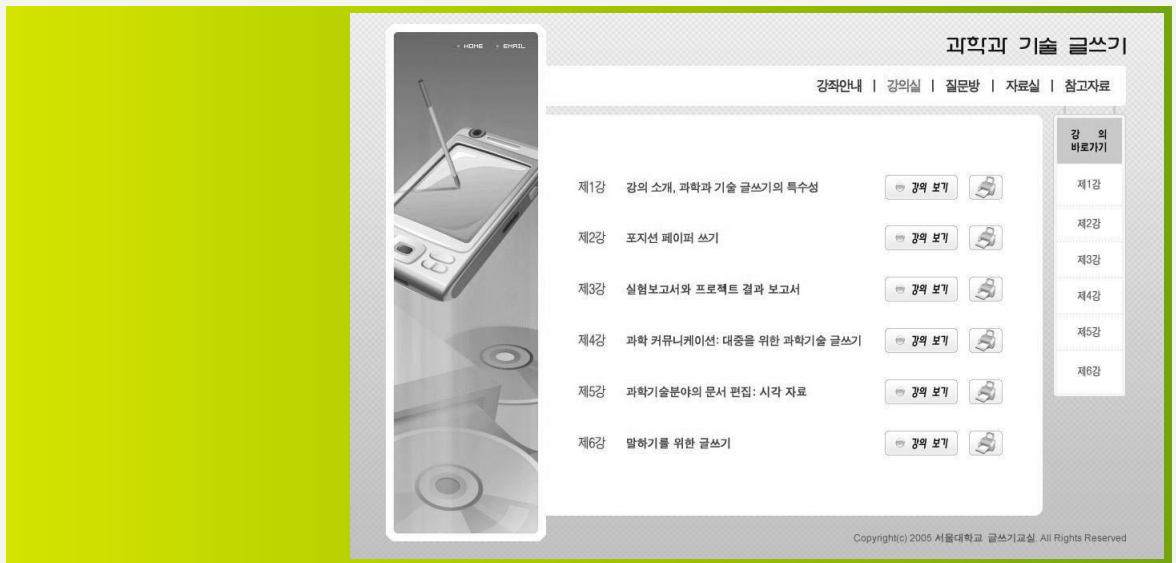
모름지기 현대사회에서 자신의 생각을 제대로 글로 표현하는 능력은 더 말할 나위 없이 중요하다. 아무리 새롭고 중요한 연구를 수행했다라도, 그 결과를 효과적으로 표현하여 그 의미와 중요성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연구결과를 사람들에게 알리기 힘들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전국적으로 그리고 전 세계에서 글쓰기나 사고의 표현이나 커뮤니케이션의 능력을 높이려는 교육이 교양교육에서 크게 강조되고 있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이다.

현재 서울대에서 글쓰기와 관련한 교육은 네 단계로 이루어지고 있다. 먼저 모든 1학년 학생들이 필수로 수강해야 하는 “대학국어”가 있다. “대학국어”에서는 글을 쓰는 기초적인 여러 측면의 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음으로 핵심교양과목은 원칙적으로 글쓰기 과제를 부과하여 전문적인 영역의 주제를 가지고 글을 쓰는 능력을 훈련시킨다. 셋째는 교수학습센터(CTL)에 속한 글쓰기 교실인데, 여러 가지 글을 교정해 주는 역할을 한다. 가령 핵심교양과목 등에서 과제로 부여된 글을 제출하기 전에 글쓰기 교실의 상담교에게서 일대일의 교정을 받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학위논문이 있다. 학위논문은 졸업 후의 진로를 준비하기 위해 한 가지의 전문적인 연구를 스스로 수행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갖추어진 논문으로 서술하는 중요한 통과리례이다. 그러나 “대학국어”를 수강한 이후에 핵심교양과목이든 학위논문이든 제대로 전문적인 논문을 작성하는 기본적인 방법은 어떤 교과목에서도 제대로 가르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상당수의 학생들이 글쓰기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기초교육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교과목이 바로 “인문학 글쓰기”, “사회과학 글쓰기”, “과학과 기술 글쓰기”이다. 서울대에서는 2004년 2학기에 처음 강좌가 개설된 이래 매 학기 네 강좌가 열리고 있다. 2007년 2학기부터는 공과대학에서 3학년 2학기나 4학년 1학기에 해당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과학과 기술 글쓰기”가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교과목이 된다. 따라서 “과학과 기술 글쓰기”의 강좌수가 크게 늘어날 예정이다.

다른 대학들에서도 글쓰기와 관련한 교육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교과목이름도 제각기 달라서 단순히 “글쓰기”라는 이름도 있고, “글쓰기와 커뮤니케이션”, “발표와 토론”, “사고와 표현”, “공학자의 의사소통기술”, “공학 작문”, “기술 작문 및 발표” 등으로 다양하다. 이 중 상당수는 서울대의 “대학국어”와 같은 성격을 지닌다. 연세대의 “글쓰기(심화)”라는 교과목이나 부산대의 “공학 작문” 정도가 “과학과 기술 글쓰기”와 같은 교과목에 준한다고 볼 수 있다.

현대의 대학교육에서 글쓰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대단히 크다는 점은 재론의 여지가 없지만, 특히 이공계의 경우에는 상황이 더 열악하다. 이공계의 전공분야를 졸업한 뒤에 이공계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글쓰기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 데에는 대략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 분야의 전공을 택하는 사람들에게 전문영역의 지식 습득이 더 강조되고 있고, 사회 전체에서도 전문화의 경향이 심화되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공계 대학생들은 전공학습에 앞서 튼실한 교양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점을 대개 간과하고 있으며, 학부 초기부터 전공 공부에 대부분의 시간을 투자하는 현상이 갈수록 두드러지고 있다. 한편, 대학 교양교육에서 실시되는 국어/작문 학습은 중등학교 시기부터 반복해 온 형식적인 측면에 멈추는 경향이 있다. 이공계 학생들은 이런 학습에서 충분한 학습동기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다. 게다가 전공분야의 학습에서 요구되는 시간





의 할애도 글쓰기 능력의 배양에 큰 장애가 된다. 나아가 기존의 글쓰기 교육은 이공계 전문분야의 글쓰기와는 상당한 괴리를 보인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다. 실험보고서나 전문적인 연구논문 등은 일반적인 의미의 글쓰기와 구분되는 특징을 지니기 때문이다.

수년 전 “이공계는 글쓰기가 두렵다”라는 제목의 책이 인기를 누린 적이 있다. 이공계 글쓰기와 관련된 교육이 사실상 전무한 상태에서 이 책은 이공계 글쓰기 교육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있었다. 아쉽게도 그 책의 수준은 거기에 그치긴 했지만, 그래도 그 뒤에 이공계 글쓰기 교육에 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현실적인 대안들을 찾고, 여러 책이 발행되는 노력이 이루어지는 데 방아쇠 역할을 했다고 평가되기도 한다.

“과학과 기술 글쓰기”라는 교과목에서는 이론적 이해보다는 실제적인 글쓰기가 강조된다. 이 교과목의 특징은 이론의 습득이 아니라 실제의 논문을 쓰기 위한 연구과정을 통해 글쓰기를 배운다는 데 있다. 교과목은 한 학기 동안 연구소 논문 한 편을 작성하는 것을 기본 목표로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여러 가지 성격의 글을 연습하게 된다.

무엇보다 먼저 한 학기 동안 자신의 관심에 따라 연구할 주제를 정하는 훈련을 하게 된다. 자신이 연구논문을 통해 주장하고자 하는 명제와 주제를 감정적으로 정하고, 이를 다른 수강생들 및 담당교수의 비평을 바탕으로 수정하고 발전시킨다. 더 나은 주장을 펼치고 자신의 주장에 근거를 대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은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떤 배경지식이 필요한지 살펴보는 것이 다음 단계이다. 이렇게 문헌을 탐색하고 기존연구를 요약한 문헌연구를 기본으로 삼아 자신이 연구하려는 주제에 대해 연구계획서를 작성한다. 연구계획서는 졸업 후에 회사나 대학원에서도 쓸공 쓰게 될 제안서나 연구계획서를 연습하는 기회가 된다. 연구계획서는 담당교수와 동료 수강생들이 문제가 없는지 검토 하여 수정할만한 점들을 제시한다. 이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의 연구계획서를 비판적으로 보는 눈을 훈련할 수 있으며, 이를 다시 자신의 글에 반영할 수 있게 된다. 모름지기 자신의 큰 잘못은 보이지 않아도 다른 사람 눈 속의 티는 쉽게 보이는 법이기 때문이다. 연구계획서의 검토가 끝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연구를 진행한다. 자신의 주장을 펼치면서 그 주장의 근거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기 위해서는 직접 실험을 하거나 설문조사를 할 수도 있고 이미 권위가 어느 정도 인정된 기존의 문헌들을 체계적이고 요령 있게 엮어낼 수도 있다. 학기 중간 무렵이 되면 모든 수강생들이 자신의 연구 논문에 대한 초고를 완성하여 발표할 기회를 갖는다. 이 초고에 대해 다시 담당교수와 동료 수강생들의 날카로운 지적을 받게 되며, 그러한 지적을 바탕으로 초고가 좋은 글이 될 수 있도록 퇴고하고 다듬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비평문을 작성하는 법이나 완성된 논문의 초록을 만드는 법도 연습한다. 부수적으로 자기소개서와 이력서(CV) 쓰기를 배우며, 여러 프레젠테이션 기법에 대해서도 배우게 된다.

그런데 이와 같은 교과목이 종종 오해를 일으키기도 한다. 이런 교과목을 한 학기 수강했다고 해서 갑자기 글쓰기 능력이 크게 향상될 리는 만무하다. 다만 체계적으로 글쓰기를 연습해 봄으로써 앞으로 평생 글쓰기를 하는 과정을 미리 합리적으로 준비하는 것일 뿐이다. 일찍이 송나라의 문장가 구양수는 글을 잘 쓰기 위해서는 다독(多讀), 다작(多作), 다상량(多商量)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좋은 글은 결국 많이 읽고 많이 써 보고 많이 생각하고 궁씹거리는 데에서 나온다는 뜻이리라.